



Thank
you♡

Dear CMS Teachers ,

CMS 에 참으로 감사한 점 중의 하나는 팬데믹 중의 위생 관리입니다. 마스크를 착용할 것 같지 않은 아이들도 마스크 착용이 습관화가 되게끔 하고, 위생스프레이로 가방 신발 분무 등 많이 신경쓰시는 게 보여서 감사했습니다.

두 번째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전도사님, 선생님과 스태프 모든 분들이 마음을 다해, 사랑으로, 기도로 양육하고자 노력하시는 것이었습니다. 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모든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.

성전도사님께서 늘 웃는, 밝은 모습으로 학부모들 맞아주시고, 박은희 선생님, 채명순 선생님 외 많은 선생님들이 최대한 등학교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, 아이들 체온 잤습니다. 박은희 선생님 늘 아이들 상태 체크하시고, 오늘 아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부모님들께 알려주셨습니다.

친조부모님(할머니와 할아버지)께서 미국에 계시지 않은 가정에게는 어떻게 보면 친정 엄마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



Thank
you♡

Dear CMS Teachers ,

CMS 에 다닌지 1년 되었는데, 웅알이 웅알웅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제법 문장을 완성시켜 자기 의사표현을 합니다. 농담을 알아듣는 여유가 생기고, 깔깔 웃는 웃음에서, 많이 큰 키에서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,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느낍니다.

이 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않으려 마음에 새기면서 마칩니다. CMS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with love
Ki Jung Kwon